

사설

조계종 환경위에 바란다

인간과 자연이 만나 이를 수 있는 최고 형태의 조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공간이 사찰이다. '명산'이라는 말에는 으레 '대찰'이라는 말이 따라붙고, 실제로 산수가 빼어난 곳에는 어김없이 사찰이 있다. 그곳에 사찰이 있음으로 해서 비로소 인간은 자연에 대한 교감의 길을 열 수 있게 되고, 자연에는 신성성이 더해진다. 따라서 사찰은, 인간의 패악이 쉽게 자연을 망치지 못하게 하는 완충지대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 전국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찰의 대형 불사를 보게 되면, 사찰에 대한 종래의 이미지는 쉽게 허물어지고 만다. 거기에 더하여 무분별한 물고기 방생 같은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계종이 '환경위원회'를 발족한다고 하니 반가움과 기대가 자못 크다.

우리가 '환경위'가 할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불교가 환경보호에 어떤 형태로

기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 둘째는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할 환경으로서의 사찰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지키고 가꿀 것인가의 문제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어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소홀히 하면 나머지 부분의 노력도 무의미해지고 만다.

수행 공간으로서의 사찰이 보호 받아야 하는 까닭에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정신적 피난처로서의 공간을 지킨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환경위의 활동은 단순히 수행 환경을 지키고 불사에 의한 환경 파괴를 막는 정도를 넘어, '세상'이라는 가장 큰 환경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는 환경위가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로 내건 '친환경적 불사 지침 마련'에 주목한다. 그동안 사찰은 환경지킴이의 역할을 자임하면서 환경 파괴의 주역이라는 지적을 받아온게 사실이다.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사찰의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줄길 기대한다. 내실 있는 활동으로, 불교야말로 가장 자연친화적인 종교임을 확인시켜 주기 바란다.

군장병위한 군승단 되자

'군대는 포교의 황금어장'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이제는 낡은 표현이 되어버렸을 정도다. 물론 이 말에는 군장병들을 포교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아만의 그림자가 묻어나지만, 여전히 군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로 가능하고 있다.

우리가 군 포교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군장병들의 불교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데 있다.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라는 시간과 공간을 경험한다. 군대의 특성상 예측할 수 없는 짝 짜여진 일과, 철저한 상명하복이 때로는 자신을 조여오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동족끼리 총부리를 맞대고 있는 현실에 젊은이들은 혼돈을 느끼기도 할 것이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적응이 힘든 시기이다. 정신적인 위로와 다독임이 그래서 필요하다. 불교는 군장병들의 정신적인 안식처이다. 여기에 우리가 군에 관심을 지니는 이유가 있다. 단지 그들의 종교적 욕구를 불자화로 대처하려는 발상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포교가 아닐 수도 있다.

일찍이 우리의 선배들은 군 포교에

관심을 두고 군승단을 조직, 30여년을 이어오며 포교에 매진해 왔다. 그런데 군승단을 해체했다는 소식이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웃 종교의 적극적인 활동에 위축돼 있던 편인데, 군승단까지 해체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이었다. 다행히 군승단의 선배법사들과 조계종 포교원이 군승단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더니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게 되었다.

군승단이 '해체'라는 극단에 이른 원인을 우리는 군승단과 포교원의 서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종단의 지원과 관리를 간섭과 통제, 일부 군법사의 그릇된 행위를 전체의 모양으로 매도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마음 한번 돌리면 지옥이 극락이 된다고 했지 않았는가. 군불교위원회 구성에 대한 이견도 마찬가지이다. 포교원과 군승단은 나름대로의 논리를 세워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군장병들이 있는지 되돌아보길 당부한다. 군승단과 포교원 모두 군장병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봉축열차' 운행한다

서울 지하철 5호선 4~5월 두달...주제별 탑·연꽃 장엄

지하철 객차가 선방으로 변신한다. 객차 내부가 온통 연꽃밭이 된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열차가 달린다.

종단협의회는 2월 27일 열린 총회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봉축열차를 운행하기로 했다. 범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 (이사장 성운스님, 참선사 주지)가 기획, 제안한 봉축테마열차는 종단협의회가 주관하고 도시철도공사가 주최한다.

이날 종단협의회 총회에서 성운스님은 제안설명을 통해 "부처님 오신날을 시민들과 함께 봉축하고, 지하철을 포교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

했다.

봉축열차는 도시철도공사 소속 5호선(방화-김포공항-광화문-마천동) 1편성 8칸 열차 중 4칸의 열차에 설치된다.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매일 4~6회 운행한다. 4칸의 열차는 '소리와 색으로의 공(空)' '현실의 버팀목-불교' 연꽃 세상' '나를 찾아서' 라는 주제에 따라 꾸며진다. 8칸 전체는 띠모양의 단청문양과 석가탑 반가사유상 등의 불교문화 재로 장엄한다.

'연꽃 세상'의 경우, 의자시트를 비롯한 전동차 내부 전체를 연꽃 문양으로 처리하고 천정에는 여러 재질의 연꽃 조화를 부착한다. 승객들

이 연꽃밭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들도록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자인 이기선씨(성보문화재연구원 연구실장)는 "4개의 주제는 혼돈과 자기성찰을 거쳐 연화장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을 상징하고 있다"며 "바쁜 현대인들이 자신을 한번쯤 되돌아보는 계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작품 설치에는 흥현숙 양주혜 김인경 안성규 정명스님 등 설치미술가들이 참여하며, 이들은 20일부터 작업을 시작한다. 1억원의 예산은 각 종단과 기업체의 협찬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화해·평화 위한 발걸음 '온겨레 손잡기운동본부'(상임공동본부장 정대스님)는 1월 3·4절을 맞아 '2001 화해와 평화를 향한 온겨레손잡기 운동' 행사를 열고 3.1 정신으로 7천만 겨레의 하나됨을 기원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수입 5억이상 사찰에 특별분담금"

조계종 재정분과위 대지정안을 제출토록 했다. 이날 재정분과위는 특별분담사찰 확대 대상 사찰을 3년 동안의 예정산을 분석하여 년5억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곳으로 제시했다. 재정분과위 21차 회의는 19일 열렸다. 정성운 기자

교역 종무원 사설사암 등록 촉구

조계종 종립교 관리위 대지정안을 제출토록 했다. 이날 재정분과위는 특별분담사찰 확대 대상 사찰을 3년 동안의 예정산을 분석하여 년5억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곳으로 제시했다. 재정분과위 21차 회의는 19일 열렸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종립교관리위원회(위원장 박대)는 2월 28일 종회사무처 회의실에서 32차 회의를 열고 종립교 소속 교역종무원의 종원·종법 위반(종단 미등록 사설사암 보유) 조사결과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

종립교관리위원회는 호법부 조사결과 종국대와 중앙승가대 교수 가운데 5명의 스님이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사설사암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3개월

현대만평 박구원

봉축열차 마음이 맑아진다

"포교사에 긍지" 84%

포교사단 110명 설문 포교사의 84%가 '포교사로서 긍지와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해 창립 1년을 맞는 조계종 포교사단의 포교활동 성과가 높음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기병)이 2월 4일부터 3주간에 걸쳐 500명의 회원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 110명은 포교의 내실화를 위해 포교현장에서 필요한 실무(54.5%), 수행(21.8%) 등이 부족함을 절감했다고 밝혀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포교사단이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포교프로그램 및 자료개발(30.9%), 포교사의 조직 및 팀활동(19.1%), 포교사교육 및 연수(9.1%), 대외홍보 미흡(7.3%) 등의 순으로 지적했다. 포교사들은 포교사단비 사용의 용도에 있어서도 포교프로그램 및 자료연구개발, 포교사단 조직운영, 교육비 지원 등을 꼽아 프로그램 개발 및 자료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포교사단의 출범 1년과 관련해 포교사들은 출범이후 포교사간 교류와 협력(35.5%) 포교사 위상강화(25.5%) 포교현장에 있어서의 높아진 인지도(15.5%) 부분이 달라진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조계종 기획실장 현고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26일 공식 종원 기획실장에 전 송광사 주지 현고스님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새 기획실장 현고스님은 3월 5일부터 출근한다.

구산스님을 은사로 71년 송광사에서 출가한 현고스님은 같은 해 구산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보살계, 76년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원효사 원각사 송광사 주지를 역임했다. 정성운 기자

올예산 2926억원 통과

동국학원, 가상대 개원

동국학원(이사장 녹원)은 2월 26일 제176회 이사회를 열고 2001학년도 법인 및 각급기관 예산안 2926억여원 규모를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는 예산심의 외에도 서울 캠퍼스 영상정보통신대학원 전임강사에 전승일 씨를 새로 임용하고 재임용 20명, 승진임용 57명, 복직 1명과 경주 캠퍼스 선학과 호진 스님을 비롯한 의원면직 6명 등에 대한 인사제청안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이밖에도 경주병원과 관련 기본재산 매입과 가상대학 2002년 설립계획 승인안 등을 통과시켰다. 오종욱 기자

국방부 선도책자 재발간

불교상담사례 대폭 확대

종교편향 내용으로 문제가 됐던 <선도상담백과>가 재발간됐다. 국방부 정선진 선임박사는 "2월 23일 <선도상담백과>가 재발간됐고, 이미 예하부대에 배포했다"고 2월 26일 밝혔다.

재발간된 <선도상담백과>는 조계종 종교편향대책위가 문제 제기한 12가지 항목을 수정했고, 기타 기독교적인 용어를 보편적인 용어로 바꾸었다. 또 특정종교의 용어가 들어갈 경우 해당 종교를 명시했고, 불교상담사례를 대폭 확충하는 등 종교편향의 오해가 없도록 했다. 김두식 기자

가야산 범보종찰 해인사 대범종

천년을 이어갈 맑은 「범음」
종종사는 오직 鐘만을 생각합니다.

장인 정신 鐘宗社

서울 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 302호 ☎ 02)725-0878
공 장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460 ☎ 043)212-0903

종량 3,300관